

지방의회 교육과정 확대 촉구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5일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 의원은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집행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4주 장기교육은 광역의회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규모도 작년 11명, 올해 12명(5급 이상)에 불과하고 기초의회는 참여기회조차 없다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지방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5일 미만의 단기교육이고, 의회 직원 대상 10개월 과정

장기교육은 역시 광역의회만 해당하고 규모도 1년 동안 단 5명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에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중·장기교육과정에 기초의회의 참여를 보장 허용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중·장기 교육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할 것,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모든 기초·광역의회를 대상으로 등등하게 사전 수요조사, 선발기준, 관리자·실무자 교육 분리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중·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청정도시 조성' 위해 악취해소 나선다

악취측정기 21대 가동 모니터링... 악취발생 상시 감시

익산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저감 종합계획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5일 2024년 악취감소 20%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익산시는 단계별 악취 대응 정책을 시행해 악취민원을 34%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1단계로 도심 주거지 신단악취 집중관리를 위해 236건의 악취배출 시설을 지도·점검하고 19건의 행정 처분을 했다. 2단계로 축산악취 관리를 강화해 민원은 37% 감소했고 왕궁 정착농원·학호마을 축사 매입을 완료했다.

아울러 남부권 축산악취 유입 감시를 위한 악취측정기를 인화행복주택과 동산호투근대 아파트에 추가로 설치해 악취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시는 올해도 악취 저감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악취 대응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제1·2신입단지 인근 신축 아파트 1만 3,000여 세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야간조업 사업장 등 특별점검 대상 55개소를 선별해 야간 순찰·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악취 규모가 큰 통합허가사업장 13개소는 전방지방환경청과 협업체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노후된 악취방지시설 교체에 대해 최대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도 진행한다.

악취민원 중 73%를 차지한 축산악취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민원유발 축사 등 중점농가 55개소를 선정해 가축분뇨법 병행 처분 및 축산악취 상시감시반 일일 운영 등 축산시설 단속을 강화한다. 김제시 용지면에서 발생·유입되는 축산악취는 김제시와 합동점검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근절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신재생자원센터, 공공하수처리장 등)에 대해서 시설개선과 적정 유지관리 추진, 악취저감 사업(안개분무시설 설치 보조, 유온미생물 보급 등) 지속 지원, 유관부서간 합동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악취측정기 21대를 가동해 악취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상시 감시체계 운영한다. 악취분석장비를 탑재한 악취측정차량 순회감시 증가로 빠른 민원 처리와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악취 저감은 필수이자 우리 시의 책무"라며 "선제적·체계적 악취 관리체제 강화로 악취발생을 감소시켜 생활환경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선거 앞 공직자 중립 의무 강조

정현을 익산시장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정현을 시장은 5일 간부회의에서 "공직자들은 선거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음률 없는 자세로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 시장은 "공직자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의사 표현이나 각종 행사 참석 등 행위를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서장들은 직원들 모두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달라"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련 법령을 잘 숙지 공명정대하게 선거 업무를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3월 28~4월 9일까지, 사전투표는 4월 5~6일 진행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설 명절 불법 현수막·정당현수막 집중정비

익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일부터 불법 광고물 및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2월 1일부터 주말 포함한 4일간 특별점검반 3개반 11명을 투입해 주요 도로변 집중 단속으로 불법 현수막 1,345건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달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앞으로도 설 연휴 전후로 특별 점검반을 가동해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점검은 연휴가 끝난 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이번 기회에 불법 현수막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정당 및 행정기관, 옥외광고협회 등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 2월 한 달 동안 정비할 것을 안내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난무하는 현수막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전 공무원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동참

익산시 전 공무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동참한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장보기 행사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통시장 장보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6일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익산시 전 직원들이 활기찬 명절 분위기를 북돋기 위해 북부시장을 비롯한 7개 전통시장에서 다이로움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한 명절 장보기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류형상품권 5% 할인 구매 한도를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모바일 및 카드형상품권 10% 할인 구매한도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이에 시는 추가로 오는 12일까지 전통시장 내 다이로움 가맹점에서 익산 다이로움으로 합산금액 3만 원 이상 결제자 중 1,000명에게 다이로움 포인트 1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명절에도 다이로움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저렴하고 신선한 제수용품, 먹거리 구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2월 5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군산 STAY 사업은 청년(예비)창업가와 청년창업기업의 청년 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하기 위하여 LH 전북본부와 협력하여 최대 2년(24개월)동안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군산 STAY 사업은 4년간 38명의 청년 창업가들이 입주하여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입주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지원자격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창

업 7년 미만의 기창업자, 또는 청년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직원이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 335만3,884원, 2인 가구 500만5,914원, 3인 가구 671만8,198원 이하여야 한다.

주소가 타지역에 있는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접수는 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받으며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LH 전북본부의 대상자 검증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설 연휴기간 120 생활민원종합상황실 운영

군산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편성, 운영한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 수도, 하수, 청소, 보건, 환경, 식품 등 8개 분야 6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 근무반을 특별 편성에 긴급 도로 보수,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단속, 긴급 상·하수도 보수, 쓰레기 처리, 응급진료 상황실 운영 등을 실시하여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반전화 120, 핸드폰 063-120으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병·의원, 약국, 음식점 등 생활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종합민원상담실 4월 10일까지 운영 중단

군산시는 그동안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해 온 종합민원상담실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종합민원상담실은 생활에 필요한 법률, 법무, 세무(회계), 소비자 고발, 건축 민원 5개 분야에 대해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으로 전문 분야 서비스 격차를 해소,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해 군산시청 종합민원실 민원 컴퓨터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상담은 연중 월요일~목요일 지정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2024년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민원상담실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선거일이 지난 2024년 4월 11일부터 민원상담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